

'21.4.13일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 두 말 씀

2021. 4.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회의를 통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차례 회의를 통해
업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의미 있는 많은 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열정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대형 플랫폼 경쟁질서 논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발표, 마이데이터 원칙 발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발표 및 현장건의 과제 개선

오늘 회의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금융협의회 상설화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II. 주요 논의 내용

1. 금융의 디지털化에 따른 리스크 요인 대응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化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탈바꿈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①첫째, 새로운 player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②둘째,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하겠습니다.

③셋째,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같은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금융분야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①첫째,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예) 금융상품 판매시 주로 사용되는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말뭉치 데이터 세트등

②둘째,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③셋째,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셉테크(Suptech) 등 AI 감독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금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년 중 금융업권별 실무지침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3.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방향

앞으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4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과제별로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①첫째, 플랫폼·오픈뱅킹 분과를 통해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핀테크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픈뱅킹 참가자 확대 등 고도화를 통해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②둘째, 규제혁신 분과를 통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초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보다 다양한 금융분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③셋째, 데이터공유 분과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Mydata) 확산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지도(Data map) 등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④넷째, 금융보안 분과를 통해서
안전한 금융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보안 원칙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증·신원 확인 제도와 망분리 규제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도 빅테크의 금융부문 진출 등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충실한 답을 도출하는 등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장
참여자 다양화에 따른 참가자 간 이견 및 갈등 조정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융복합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분야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디지털금융정책의 최고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